

목포해경 공용화기 사용 허가 후 첫 신안 해상 종합훈련 가보니

포탄 발사·불법 선박 검문...실전 방불

40mm 노봉포·20mm 발칸포·M60 등 화기 위력

7개 함정 140명 “해상주권 지키자” 의지 불태워

“총원 상황배치! 총원 상황배치!”
10일 오전 11시10분께 신안군 우이도 서쪽 16km 해상을 항해하던 목포해양경비 안전서 소속 1508함(1500t)에 상황대세가 선포됐다. 레이더상에 가상의 적인 부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1508함 조타실에서 항해를 지휘하던 최종집 함장이 곧이어 항해대세에서 ‘전투대세 돌입’을 선언하자 승조원 47명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다.

한 승조원은 시시각각 레이더상에 변화되는 적(부표)의 위치와 거리를 보고했고, 최 함장은 함정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했다. 우천으로 적이 쉽사리 발견되지 않자 지휘함인 1508함과 함께 항해에 나선 목포해경 소속 1509함, 305함, 126정, P39정 등 다른 6척의 함정도 긴박하게 무전을 주고받았다.

최 함장의 입에서 “각포 회로 및 전도검사” 명령이 떨어졌고, 승조원이 “관측방 거리 230도, 거리 3900(마일)”을 외쳤다. 적이 레이더와 육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격 통제 연결. 쏘기 시작!”
오전 11시30분께 최 함장의 ‘쏘기 시작’ 명령에 맞춰 1508함 40mm 노봉포가 불꽃을 뿜어내며 포탄 한 발을 발사했다. 이내 탄착점 수정을 마치고 연이어 9발의 포탄이 굉음을 내며 3.9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다.

이어 20mm 발칸포가 2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향해 40발을 쏘고, M60을 움직이고 있던 승조원들이 160발의 탄환을 목표물을

향해 날렸다.

이날 함포 사격은 해경이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하는 해상종합 훈련의 하나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첫 사격훈련에 나선 7개 함정, 140여명의 승조원들은 어느 때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상주권 확보를 위해 의지를 불태웠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 어선의 폭력저항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일 중국 어선 단속과정에서 실제로 M60 기관총 600~700발을 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지금까지 중국 어선으로부터 공격당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던 무기를 지휘관이 판단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사용 매뉴얼을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다. 이 매뉴얼은 ‘선 조치 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날 훈련은 해상사격 외에도 함상 예절, 불법외국선박 검문검색, 다수 인명구조, 기동항해, 해양오염방제, 해상집단행동대응 등 모두 23개 종목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선내진입 퇴선유도’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선박 침몰 사고시 승객들의 신속한 퇴선과 구조를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인근을 지나던 선박의 조난 신고가 접수되자 1508함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긴급회의를 통해 구조활동 방식을 결정해 승선원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최 함장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무기사용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 해양주권과 어민의 안전을 지키고, 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한 조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전 같은 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이도=김경원기자kki@kwangju.co.kr



10일 신안군 우이도 서쪽 약 16km 해상에서 목포해경 1508함이 40mm 노봉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의 이번 훈련은 지난달 인천 해상에서 우리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이후 첫 사격훈련이다. /우이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압박에도 공무원들 민중총궐기 참여 열기

광주·전남 전공노·전교조 3000여명 상경...전세버스 수급난

‘2016 민중총궐기’ 참여 열기가 뜨겁다. 정부의 2차례 압박 공문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무원 노조가 위축되기는커녕 대대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집회 참여자를 실어나를 버스가 부족한 형편이다. 전공노 광주·전남본부는 공무원의 시위 참여를 막으려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도 12일 서울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최소 2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도 1000명 안팎의 조합원이 총궐기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합원의 경우 가족을 동반한 상경 투쟁이 될

것이라고 공무원 단체는 덧붙였다. 앞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지난 1일과 3일께 광주시, 전남도와 각 구청, 시·군 등에 ‘공무원 단체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무원 단체가 12일 개최되는 민중 총궐기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만큼 각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울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민중 총궐기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종 및 성실 의

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추후 징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공노 측은 “이런 협박성 공문은 항상 있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 민중 총궐기대회 참여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에서만 버스 400대 이상 필요한데 겨우 300대 조금 넘게 구한 상황이다. 전세 버스가 씨가 마를 정도로 공무원 단체를 비롯한 집회 참여 열기가 뜨겁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SRT 운영사 과실로 중지시

전액 환불+배상금 최대10%

열차 운영사의 책임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운행이 중지되면 승객이 전액 환불은 물론 3~10%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앱으로 SRT를 예약했다가 열차를 놓친 승객은 출발하고 5분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12월 개통하는 SRT 운영사인 ㈜SR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송약관을 확정,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열차 출발 전이면 기본적으로 요금 전액이 환불된다.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 구간의 운임·요금을 100% 환불하고 10%를 배상한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3
해질 17:29
달출 15:25
달짐 02:46

평년기온회복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주	후린뒤 맑음	7/16	보	성	후린뒤 맑음	3/16
목포	포	후린뒤 맑음	9/16	순	천	후린뒤 맑음	6/17
여수	수	후린뒤 맑음	9/16	영	광	후린뒤 맑음	5/16
나주	주	후린뒤 맑음	4/16	진	도	후린뒤 맑음	8/16
완도	도	후린뒤 맑음	9/16	전	주	후린뒤 맑음	7/16
구례	레	후린뒤 맑음	4/16	군	산	후린뒤 맑음	7/15
강진	진	후린뒤 맑음	6/17	남	원	후린뒤 맑음	4/15
해남	남	후린뒤 맑음	6/17	흑	산	후린뒤 맑음	11/16
장성	성	후린뒤 맑음	4/1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면바다	서~북서	1.5~3.0	서~북서	1.0~2.0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면바다(동)	서~북서	1.0~2.5	서~북서	1.0~2.0
남해	면바다(서)	서~북서	2.0~3.0	서~북서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21	11:07	16:43	23:32
여수	00:06	12:14	06:19	18:43

◇주간 날씨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5/10	8/19	10/19	6/14	5/15	6/16	7/16



◇생활지수

	주의
	낮음
	높음

17일 수능 한파 없다...낮 최고 16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일인 17일 광주·전남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으면서 한파가 없을 전망이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광주·전남은 구름은 많이 끼겠으나 기온은 다소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목포와 여수 등 전남지역 역시 아침 최저기온이 6~9도, 낮 최고기온은 15~16도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기료+전력 부담금 납부는 부담”

가정용 전기 사용자 6명 산자부 상대 소송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력 부담금까지 누진해서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0일 가정용 전기 사용자 6명을 대리해 지난 8~10월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 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 제51조 1항과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 3.7%를 전력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신재생 에너지 지원과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지원 등에 쓰인다.

사용자들은 누진 단계에 따라 요금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정용 전기에 일괄적으로 3.7%의 부담금이 부과돼 현저

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대리한 넥스트로는 “원고 중 1명은 국내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보다 단위 전력량 대비 7배나 많은 금액을 전력 부담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또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본 원칙은 원인·수익자 부담인데 전력산업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보다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위반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들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반발해 한국전력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1심에서 잇달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반)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2.40%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223-5506

구도청1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